

탁신 치나왓 태국 총리를 위한 만찬사

존경하는 탁신 치나왓 총리 각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총리 각하와 일행 여러분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아시아의 지역 협력 강화를 위해서 큰 지도력을 발휘해 오신 각하를 모시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각하께서는 3년 전 야당 당수 시절에도 서울을 방문하셨고, 지금까지 한국과 태국의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을 보여 주셨습니다. 나는 오늘 정상 회담에서도 각하의 이러한 관심과 의지를 거듭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의 만남을 통해서 양국의 전통적인 우호협력 관계가 미래를 향해 더욱 발전해 나갈 것임을 확신합니다.

총리 각하,

태국은 각하께서 취임하신 2001년 이후 연 5%의 높은 실질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대외채무도 1997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태국 경제가 건실한 지속성장의 기반을 다지게 된 것입니다. 이는 각하께서 강력하게 추진해 오신 경제개혁의 성과입니다. 빈곤 해결과 마약 퇴치, 그리고 부패 척결을 위한 사회개혁 정책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각하의 탁월한 지도력과 기업가적인 경영 마인드가 이와 같은 개혁 성공의 열쇠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하께서는 범 아시아 지역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지난해 '아시아협력대화(Asian Cooperation Dialogue)'의 출범을 주도하셨고, 어제 개막된 태평양경제협력회의(PBEC) 총회에도 적극 참여해 주셨습니다. 각하께서 심혈을 기울여 오신 '아시아협력대화'가 아시아 국민간의 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하기 바라며, 오는 10월 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총리 각하,

태국에 대한 우리 국민의 친밀감은 매우 각별합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태국은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참전했고, 우리와 함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우리 국민은 6,300여 태국 젊은이들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태국 국민들의 진정한 우정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두 나라는 1958년 수교 이래 외교와 경제·사회·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양국간 연간 교역은 40억 달러를 넘어섰고, 작년에는 약 80만명에 이르는 양국 국민이 서울과 방콕을 왕래했습니다.

앞으로도 양국간 협력 증진의 잠재력은 무한합니다. 이번에 우리 두 나라는 '형사사법공조조약'과 'IT협력약정', 그리고 '투자협력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한층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양국 정상의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각하.

지금 동아시아는 세계 경제의 성장축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동아시아 협력의 중심점이 될 ASEAN과 한·중·일간의 협력도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동북아시아에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태국을 비롯한 아세안과 협력하는 가운데 실질적인 동아시아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데에도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당면 과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문제도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모레부터 시작되는 6자 회담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동안 각하와 태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적극 지지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총리 각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 변함없는 황금과 같다”는 태국의 속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황금과 같이 귀하고 변치 않는 우리 두 나라의 협력과 우정이 언제까지나 계속되기를 희망합니다.

푸미폰 국왕 폐하와 탁신 총리 각하의 건승을 위해서, 그리고 태국의 번영과 우리 두 나라 국민의 영원한 우의를 위해서 다 함께 축배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